



빠르고 신속한 갑상선 집중치료 고대병원 갑상선센터 개소



고대병원 갑상선센터(센터장 정광운, 이비인후과)가 개소했다. 병원은 지난 22일(화) 김린 고려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박승하 고려대학교병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개최하고, 윈스톱의 빠르고 신속한 갑상선 집중치료를 선도할 갑상선센터의 개소를 축하했다.

김린 의무부총장은 “갑상선센터의 개소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고려대의료원의 자랑스러운 센터 중 하나로써 갑상선환자의 완치를 위해 힘써주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박승하 원장은 개소식에서 “여러 진료과 의료진의 원활한 협진으로 아시아 최고 갑상선센터가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또한, 정광운 갑상선센터장은 “한 환자를 위해 일곱과의 의료진이 협진할 수 있는 체계를 확실히 구축했다”며 “속도는 빠르지만 더욱 안전하고 수준높은 고품격 치료를 환자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갑상선 집중 치료 “hi pass 시스템” 가동

고대병원 갑상선센터는 내분비내과, 유방내분비외과, 두경부외과(이비인후과), 핵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의 7개 진료과 의료진의 협진을 통해 환자가 월~금요일까지 언제 병원을 방문하더라도 시니어급 의료진에게 진료가 가능하도록 진료시간이 구성되어있고, 핵의학과 검사가 필요한 일부 검사시 경우 배양 등 검체 확인에 필요한 시간이 있어 당일 진단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 결과 확인 및 진단도 당일 가능하다. 갑상선에 혹이 있는 경우는 환자의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게 외래 당일 갑상선암검사를 진행하여 1주일 이내에 진단을 내리고, 수술이 필요한 경우 2주 안에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타 의료기관에서 이미 암을 진단받고 환자에게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일 수술일정을 확정한다. 내분비내과 의료진에게 진료를 받은 경우에도 외과 교수와의 협진으로 진료 당일 수술일정을 확정함으로써 신속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진료는 신속하게 이루어지지만 더욱 정밀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실시한다. 고대병원에서는 갑상선 절개수술, 내시경수술, 로봇수술이 모두 가능하며, 환자의 상태 및 경제적인 상황까지 고려한 최선의 치료를 제공한다.

▲ 흉터 없는 내시경-로봇수술, 환자만족도 ‘최고’

갑상선은 수술 후 흉터가 남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겨드랑이에 내시경을 집어넣어 흉터가 전혀 드러나지 않게 하는 내시경수술은 환자만족도가 매우 높다. 이 수술은 암 크기가 1

cm 이하고, 림프절 등에 전이가 없을 때 적용한다. 갑상선 수술의 경우에는 기존의 수술법으로는 목 아래 부분에 밖으로 보이는 긴 절개 흉터가 남는데 반해, 내시경과 로봇을 이용한 수술은 가슴과 겨드랑이 주름을 따라서 혹은 머리카락 선(hair line)의 안쪽, 구강을 통해 절개하기 때문에 흉터가 거의 보이지 않아 수술 후 환자들의 만족도가 크다.

또한, 갑상선암이 성대마비를 동반한 경우 진단과 성대수술을 동시에 받을 수 있고 암이 많이 진행되어서 후두나 식도를 침범한 경우에도 동시에 수술을 진행함으로써 환자의 만족도를 높인다.

고대 안암병원 갑상선센터 정광운 교수(이비인후과)는 “특히 머리카락 선을 이용해 갑상선의 혹을 절제하는 수술은 흉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환자들이 기존의 수술에 비해 미용적 만족도가 매우 높고, 음성이나 연하, 경부 불편감 등도 조기에 정상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설명했다.

정광운 교수는 “갑상선암이 착한 암이라서 치료를 하지 않고 관찰해도 된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왜냐하면 착한 암이라는 것은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했을 경우이고, 진행되어 발견된 경우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며 “미국의 한 대통령도 갑상선암으로 사망한 경우가 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니 모든 의료진이 열심히 치료를 했겠지만 결국은 실패했다. 착한 암이라도 진행된 경우는 그 치료 결과를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정광운 교수는 “따라서 다른 모든 암과 마찬가지로 조기 발견하고 조기 치료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에서도 의료비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암을 완치시키기 위해서 조기발견 프로그램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명	진료시간	전문진료과목
*배 정 원	화 오전	갑상선암
*정 광 운	화 오후, 목 오전	갑상선암 (목요일:갑상선 종양 클리닉)
*백 승 국	월 오전, 수 오후	갑상선암
*김 훈 엽	수 오전, 월-목 오후	갑상선암, 부갑상선종양, 부신종양
박 민 우	금 오후	갑상선암
이 혜 윤	금 오전	갑상선암
*김 신 곤	목 오전, 월 오후	갑상선기능항진증, 저하증, 결절 및 암
*김 희 영	금 오전, 화 오후	갑상선기능항진증, 저하증, 결절 및 암
김 남 훈	화 오전	갑상선기능항진증, 저하증, 결절 및 암
김 윤 정	수 오전	갑상선기능항진증, 저하증, 결절 및 암
김 선 화	월 오전	갑상선기능항진증, 저하증, 결절 및 암
어 재 선	금 오후	종양핵의학,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

* 선택진료의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위하여

13.08.20	교우회 의전원 장학금	₩ 26,470,000	13.08.27	의전원 학부모회	₩ 2,500,000
13.08.26	김정혁	₩ 20,000,000	13.09.04	김재민	₩ 5,000,000
13.08.27	의과대학 31회 동기회	₩ 15,000,000	13.09.04	천호영	₩ 5,000,000
13.06.28	정수현	₩ 4,554,000	13.09.04	이종현	₩ 5,000,000
13.07.17	덴티움	₩ 5,000,000	13.09.04	심영호	₩ 5,000,000
13.06.26	이명주	₩ 3,600,000	13.10.10	김만수	₩ 1,000,000
13.06.13	문숙	₩ 2,750,000,000	13.10.02	미주교우회	₩ 150,000,000
13.08.20	교우회 장학금	₩ 18,824,500	13.10.15	이재원	₩ 10,000,000
13.08.14	임창수	₩ 50,000,000	13.10.17	한창수	₩ 1,000,000
13.08.27	의과대학 학부모회	₩ 5,000,000	13.10.21	윤종태	₩ 2,000,000

* 기간 : 2013년 08월 20일~2013년 10월 21일, 순서는 기부(약정) 일자 기준임



JCI인증
환자중심병원





보건복지가족부
첨단의학선도
연구중심병원

이식 가능한 '간' 의 저변을 넓혀라 _ 간담체외과 김동식 교수 [차세대명의]

기증 불능 간이식, 혈액형 불일치 간이식 성공



▲ 이식 대기 중 간암 발병했던 환자, 버려질 뻔한 간 받고 20일만에 건강하게 퇴원

20년 가까이 B형 간염과 이로 인한 간경화 치료를 받고 있던 조 씨(60세, 여). 결국 2009년 간이식 대기자로 등록했고, 대기 중에 심한 복수와 간성혼수, 복막염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결국 2010년 7월 간암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두 자녀는 모두 B형 간염 보균자였고, 배우자는 고령으로 인해 간 기증이 불가능해 마냥 뇌사자의 간을 기다리며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다.

심한 복수와 고열에 시달리는 조 씨를 입원 치료하던 간담체외과 김동식 교수는 서울시내 한병원에서 뇌사장기기증자가 발생했으나, 검사결과 60% 이상의 지방간 변성을 보여 기증 예정환자에게 이식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버려질 계획이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김 교수는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해당병원에 가서 간 조직 검사결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고, 조 씨에게는 이식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간을 적출한 후 조 씨에게 이식을 실시했다. 비록 간이 최상의 상태는 아니지만 간이식의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증자 간 이외의 요소, 즉 허혈시간, 수술 시간 등을 적절히 잘 조절하면 조 씨와 같은 환자에게 이식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대기 순위가 한참 아래였지만 선순위 기증자들이 모두 포기하였고, 다행히 조씨는 2011년 5월 간이식을 받아 건강을 되찾았다. 수술 후 2년이 좀 더 지난 최근 검사에서는 기증자 간에 있었던 지방간 변성이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아주 건강한 간으로 탈바꿈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고대병원 간 이식..김동식 교수가 다시 시작

김동식 교수의 도전이 가능한 이유는 그만큼 풍부한 임상경험과 뛰어난 기술이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美 이식외과의사협회(ASTS) 정회원이다. ASTS 정회원은 미국에서 정식으로 이식외과 교육과정을 이수한 외과의에게만 멤버가 될 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국내에 매우 소수의 의료진만이 정회원 자격을 갖고 있다.

또한, 간 이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가 했던 안암병원에서 간 이식 전문 팀을 구성하고, 높은 이식 성공률을 거두며 고대병원의 간 이식 분야를 빠르게 성장시켜왔다. 최근에는 학계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인정받고 있으며, 몽골, 카자흐스탄 등 외국에서까지 간이식을 받기 위해 환자들이 김동식 교수를 찾아오고 있다.

얼마 전에는 한 드라마 제작팀에서 간 이식의 후발주자로서 간 이식의 저변을 넓혀가고 있는 김 교수의 도전적이고 성공적인 이야기를 주제로 드라마를 제작하고 싶다는 의뢰까지 받았을 정도이다.

김동식 교수는 “간이식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잘한다. 특히 생체간이식의 성적은 우리나라가 가장 좋다”고 강조하며 “하지만 외국에 비해 아직 뇌사기증자가 많지 않고, 생체 간이식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은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입장에서 큰 부담이다. 앞으로 다양한 간이식의 영역 확대를 통해 좀 더 많은 대기자가 이식에 성공하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간암 수술 대상도 넓힌다

김교수는 간이식뿐만 아니라 간암 최소침습수술인 복강경 간절제술, 간암 수술보다 훨씬 수술이 크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간문부 담도암 수술, 대장암 간전이 수술 등 간의 다양한 수술도 직접 집도하고 있다. 일주일에 이들은 외래에서 진료를 보고, 3일은 꼬박 수술실에서 틀어박혀있어야 할 정도.

특히, 최소침습수술인 복강경 간절제술과 효과적인 대장암 간전이 수술 등을 통해 더 많은 환자들이 부작용은 최소화하며 간암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에는 간 수술 후 발생하는 간기능 부전을 예방하는 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으로 쥐의 90% 간절제술 후 남은 간의 재생과 생존율에 미치는 효과를 비롯해 다양한 방식의 연구가 진행 중이다.

김동식 교수는 “수술 후 간기능 부전을 예방하면 간 수술 후에 회복을 더 원활하게 하고, 더 큰 수술도 견디게 할 수 있으며, 고령자의 수술도 가능해져 간암 수술을 받을 수 있는 환자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며 “간 질환이 늦게 발견되기 때문에 수술 시 이미 암이 많이 진행된 환자가 많은데, 수술 성공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려대학교병원, 초진 암환자대상 빠른 <hi-pass system> 실시!

빠른 癌(암) 치료

병원에 처음 오시는 암환자는 무조건 'hi-pass~'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합니다.

*hi-pass 시스템이란?

초진 암환자를 위해

당일 진료, 당일검사, 1주내 진단, 진단 후 1주내 입원, 수술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는 고대병원만의 암환자 맞춤 진료 프로세스입니다.

* 환자의 임상적 상태에 따라서 상기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 어떻게 치료할까? - 심혈관센터 박상원 교수 [건강정보 1]



▲ 보통 성인의 맥박수 기준으로 부정맥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부정맥은 광범위한 질환이다. 대개 심장박동의 정상범위를 임의적으로 분당 60~100회 사이를 정상기준으로 본다. 안정 시에 100회 이상으로 갔을 때 빈맥, 60회 이하로 느리게 뛸 때에는 서맥이라고 하며, 맥박 수에 이상이 없더라도 맥박이 불규칙한 것도 부정맥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다.

▲ 부정맥의 종류도 여러 가지인데, 그 중 가장 흔한 유형은 어떤 것이고 가장 심한 경우는 어떤 것인가?

심장은 심방, 심실로 이렇게 나뉘게 된다. 치료를 필요로 하는 가장 흔한 경우는 심방세동과 같은 심방성 부정맥이며, 위험한 쪽은 심실 쪽에 생기는 질환이다. 심실세동, 심실빈맥과 같은 경우에는 심장마비로 진행이 될 수 있어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 부정맥을 가장 확실하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심전도 검사가 가장 중요한 진단의 방법이다. 발작성 증상이 있을 때 심전도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쉽지 않은 않다. 집안에서 갑자기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병

원에서 심전도를 찍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만큼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심전도를 하루 동안 붙이고 생활을 한다든가 아니면 작은 핸드폰 정도 크기의 기계를 가지고 다니면서 본인이 증상이 있을 때 심전도를 측정하는 방법도 있다.

▲ 부정맥은 약물이나 여러 가지 치료법들로 완치가 가능한 병인가?

발작성 빈맥의 경우에는 심장 전기회로의 선천적 이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교정해주면 대개 98% 이상까지 완치가 된다. 쉽게 말해서 심장의 전기회로에 이상이 있는 부위를 찾아서 태워버리는 것이다. 그 외 흔한 부정맥인 심방세동이라든가 심실성 빈맥 등도 전극도자절제술을 이용하지만, 아직까지 성공률은 70~80%로 조금 더 발전이 필요하다. 서맥성 질환인 경우에는 완치라기보다는 인공심장박동기를 이식함으로써 치료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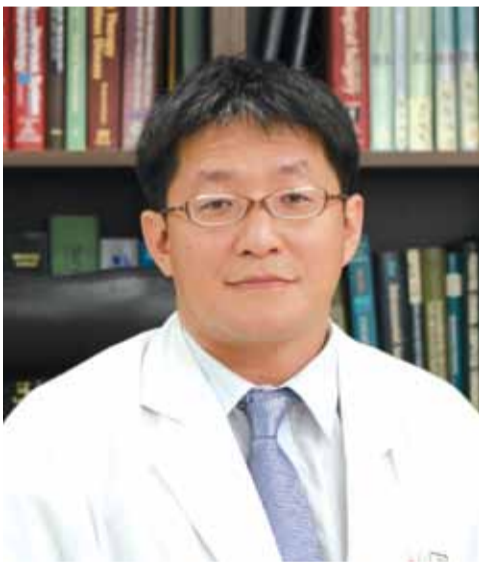
▲ 수술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와 가장 예후가 좋은 수술법은?

우선 전극도자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선천적인 심장 내 전기회로 이상에 의한 발작성 빈맥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진다. 그 외에도 심방세동, 심실성 빈맥의 경우에도 고려될 수 있다. 서맥성 부정맥의 경우에는 인공심장박동기, 심실성 빈맥에 의한 돌연사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는 이식형제세동기를 시행한다.

▲ 부정맥 환자들이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수칙은?

부정맥은 굉장히 광범위한 질환이다. 그래서 부정맥에 대한 예방법이라는 것이 특별한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심장질환에 대한 예방법과 동일하다. 맥이 없고 기운이 없고 어지럽고 하는 것을 나이가 들었으니까 생기는 증상이겠지라고 본인이 심장질환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것을 느꼈을 때 가까운 병원을 찾아서 도움을 구하는 게 치료에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

현대인의 고질병, 허리통증 예방법 - 척추통증센터(신경외과) 이장보 교수 [건강정보 2]



▲ 허리통증과 디스크는 같은 것인가??

그렇지 않다. 우선, 허리통증은 당연히 허리에 생기는 모든 통증을 지칭하는 말이다. 하지만 여기서 허리 자체에서 발생하는 통증과 허리, 척추에서 생기는 병을 구분해서 봐야한다. 허리자체의 통증은 허리의 근육이나, 척추뼈에서 기인하는 통증인 경우가 많다. 반면에, 우리가 흔히 디스크라고 부르는 디스크 탈출증의 경우에는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병변은 척추에 있지만 통증은 요통 뿐만 아니라 다리로

뻗쳐내려가는 방사통의 형태로 많이 나타나게 된다. 디스크는 허리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원인 중 하나인 셈이다.

▲ 허리통증의 주원인은?

요통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들은 정말 다양한데, 크게 다쳐서 생기는 외상성 통증과 퇴행성척추질환에 의한 통증이 있다. 외상성 통증의 경우에는 가벼운 염좌부터 시작해서 골다공증이 있는 어르신들께 흔히 볼 수 있는 척추체 압박골절, 심한 경우에는 척추강내에 있는 척수를 다치게 할 수 있는 파열골절 등이 있다. 이런 외상보다 더 흔한 것이 퇴행성 척추 질환들인데요, 퇴행성 디스크탈출증, 척추전방전위증, 척추강 협착증 등이 있다. 이런 질환들은 퇴행성 질환들이라 보니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께 더 흔하게 보인다. 이외에도 척추염 같은 염증성 질환도 있고, 질병이 아니더라도 과도한 운동이나, 임신으로 인해서도 요통은 발생할 수 있다.

▲ 허리통증 치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허리통증이 있을 때, 별 것 아니겠거니, 근육통이겠거니 하고 병원을 찾지 않고 진통제만 드시거나, 파스 붙이고 마는 사람들이 있다. 허리 통증에 대한 치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정확한 진단이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요통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들이 매우 다양하고, 각각의 질환에 대한 치료법이 다르기 때문에 척추신경외과 전문의를 방문하여 진찰 및 검사를 하고 정확한 진단을 내려, 이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어느 정도가 되면 병원치료를 받아야 할까?

우선, 허리 통증은 통증자체에 대한 대증적 치료보다 통증의 원인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그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전에는 없던 요통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생활에 불편함이 있다면 빨리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 특히, 병원에 빨리 가서 신속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야 하는 척추 질환들의 증상들이 몇 가지 있다. 소변이나 배변조절기능에 이상이 있다고 느껴지는 경우, 다리에 힘이 약해지거나 발의 힘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심각한 척추질환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즉시 척추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거나 응급실을 찾아야겠다. 차 사고나 추락 사고 같은 심각한 사고를 당한 경우, 잠에서 깬 정도의 심한 요통, 진행되는 양상의 요통 같은 경우에도 병원에 빨리 가보시는 것을 추천한다.

▲ 수술을 해야 하는 허리통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어떤 특별한 상태에 있어서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다. MRI같은 영상검사 및 진찰 소견에서 발견된 뚜렷한 원인이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이다. 척추에서 생기는 종양, 마비증상이나 대소변 조절기능에 영향을 주는 심각한 신경압박현상, 어떤 종류의 심각한 척추염증 등은 반드시 수술을 필요로 한다. 좋은 소식이 두가지 있는데, 하나는 잘 선택된 수술은 척추 질환이나 요통에 있어 최선의 치료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한가지는 앞서 말씀드린 응급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허리 수술은 의사와 환자가 충분히 상의하여 고를 수 있는 하나의 선택 옵션이라는 점이다. 🍷

척추를 건강하게 하는 바른 자세 - 척추통증센터(재활의학과) 이상헌 교수 [건강정보 3]

우리 몸의 중심을 잡고 있는 '척추'는 모양에 따라 다양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 두통을 일으킬 수도 있고 디스크를 유발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 걷는 행위에도 불편함을 줄 수 있다.

멀쩡했던 척추가 휘어지는 가장 원인은 앉아 있는 자세나 걸어가는 자세와 같이 생활습관에 좌우될 수 있다. 다리를 꼬아 앉는 자세만 봐도 방향에 따라 시간에 따라 척추에는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한다. 내 몸의 중심인 척추 건강에 대해 척추통증센터(재활의학과) 이상헌 교수와 알아보자.

▲ 척추란?

- 척추는 우리 몸의 대들보,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한다. 모든 동작을 할 때 대들보(척추)가 정확히 힘을 받치고 있어야 손동작, 발동작이 자유롭고 전혀 무리가 없다. 그리고 척추 사이사이에는 디스크(척추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물렁뼈)가 존재하여 일상 생활시 압력을 완충하여 주고, 척추를 움직일 때 관절 역할을 하여준다.

▲ 척추와 자세의 관계는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생활 속에서 우리 척추에 무리를 주는 대표적인 습관·행동, 어떤 것이 있는가?

- 다리를 꼬거나 한쪽으로 기대서 비스듬히 있는 자세 등이 척추에 무리를 주는 안 좋은 자세라고 할 수 있다.

▲ 다리를 꼬는 것이 오히려 척추에 부담을 덜 준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다리를 꼬는 건 어떤건지?

- 다리를 꼬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한쪽 방향으로 오랫동안 꼬는 것이 척추에 무리를 주는 자세이다. 한쪽으로 오랫동안 척추를 꼬는 자세는 향후에 척추측만증 혹은


디스크탈출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안 좋은 자세가 계속될 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 대부분의 초기증상은 허리가 아프고 목이 빠근한 증상이다. 어느 순간부터는 허리가 아프면서 팔과 다리가 저리기 시작한다. 자주 허리가 아픈 것은 척추를 안정하게 잡아주는 허리근육이 약해지고 있다는 뜻이므로,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적절한 운동과 자세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 우리 자세를 바르게 하고 그래서 척추도 곧게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어떤 자세, 어떤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할까?

- 우리 척추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바른 자세가 중요하다. 바른 자세는 배에 힘을 주고 옆에서 봤을 때 일자로 보이게 앉는 것이 좋고 의자에 깊숙이 앉는 것이 좋다.

평소에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기란 쉽지가 않다. 우리가 오랫동안 앉아 있는 이 시간 이때만이라도 바르게 앉아 있으면 척추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한다. 바른 자세로 척추를 건강하게 지켜보도록 하자. 



무한~고대!! 고연전 럭비, 축구 응원 나서

[기획특집]

고대의 필승! 전승! 압승! 위해 열정 불살라




고려대학교병원이 고연전 응원에 나섰다. 병원은 지난 9월 27~28일 양일간 잠실 주경기장에서 개최된 '2013 정기 고연전'에 250여명 규모의 응원단을 파견해 고려대학교의 승리를 기원했다. 이번 응원단은 고연전 참여를 원하는 교직원들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구성되었으며, 야구·농구·럭비·축구 등의 경기에 참석해 열띤 응원을 펼쳤다. 예상과 달리 지원자가 폭주해 250여명 선에서 신청이 마감되기도 했다.

이번 응원단은 고연전에 참여해 학생 및 교우와 하나되어 뜨거운 고려대학교의 응원 열기에 흠뻑 젖어들었으며, 고려대학교의 경기 승패와 희로애락을 같이하는 열정적인 시간을 보냈

다. 더불어 고려대학교 및 병원에 대한 애사심과 자긍심을 높이고, 승리의 미래를 다짐했다.

이 날 경기에는 MBC 무한도전팀이 참여해 응원의 열기를 더했다. 경기는 럭비는 20:17 승, 축구 2:3 패의 성적으로 마감됐으며, 고연전은 종합 2승 1무 2패로 무승부를 기록했다.

무한도전은 2013년 정기 고연전에서 고려대와 연세대의 응원단으로 나섰다. 무한도전 멤버 중 유재석·박명수·정준하·하하의 고려대 응원단과 함께 호흡을 맞췄으며, 화려한 문양이 새겨진 붉은 응원복을 입고 화려한 응원을 펼쳤다.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꿈꾸는 신창내과 김명희 원장님

[협력병의원 인터뷰]



신창내과 김명희 원장(왼쪽에서 네 번째)과 직원들의 단체사진



신창내과 전경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는 10월 중순, 고객센터팀의 변동을 팀장과 함께 고대병원 협력 병의원인 신창내과 김명희 원장을 만났다. 협력병의원의 첫 번째 주자인 신창내과는 내과여 의사 1세대인 김명희 원장과 함께 30여년의 역사를 가진 곳이다. 김 원장의 모교와 병원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느낄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 Q1. 진료분야가 어떻게 되시는지?

- 1차 의료기관이므로 특별히 전문진료를 표방하지 않지만 소화기 내시경 전문의와 영상 의학과 전문의가 있어서 소화기 질환(대장용종 치료 및 암 진단 등)에 대한 진료와 건강검진을 많이 하게 됩니다.

▲ Q2. 신창내과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 꾸준히 저희 병원을 찾아주시는 환자분들의 신뢰에 보답하고자 성심껏 환자분들을 돌봐 드리려고 노력하려 하고 있습니다.

1차 의료기관으로 전문 의료진들을 갖추어 진단효율과 암발견율이 높고, 대학병원 등 상급 의료기관과 연계해 환자분들이 빠른 시간에 진료 및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점이 라고 생각합니다.

▲ Q3.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으신지요?

- 저희 병원을 믿고 대를 이어서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곳을 전전하면서 문제를 진

단하지 못한 환자분이 저희병원에서 진단되고 또 대학병원에 진료의뢰를 드려서 성공적으로 치료 된 경우입니다.

▲ Q4. 벌써 개원한지 30여년이 되었는데, 병원을 성공적으로 세우고 이끌어 온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환자 중심의 사고가 생활화 되었다고 할까요. 항상 환자분들에 대해 생각하고, 성실하게 진료하려고 노력한 것이 비결이라면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 의료기관으로 전문의료진과 함께 진료하면서 나름대로 시대흐름에 맞추어 진단능률을 높이고, 우리가 치료하기 어려운 질환의 경우 대학병원 교수님들께 상의드리고, 진료의뢰 하면서 궁극적으로 환자분들의 치료에 도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 Q5. 향후 병원발전 비전은?

- 지역사회 의견을 잘 살펴보고,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심중입니다.

▲ Q6. 고대병원의 좋은 점과 믿을 수 있는 점이 있다면?

-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 그리고 질병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또한 의뢰한 환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주치의와 원활한 의견교환이 가능하다는 점이 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모교라서 의사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준 병원이며, 개업의 입장에서 고대병원의 존재는 상당히 고맙고 꼭 필요한 병원입니다.

▲ Q7.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최근 의료현장에서 의사-환자간의 관계가 바람직한 쪽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이 안타깝지만 현실입니다. 진료현장에서 부딪히게 되는 의사-환자간의 갈등이나 불화에 대해 조언하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특성병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병원위치 : 서울 도봉구 창2동 578-2 / 홈페이지 : www.shinchang1982.co.kr

머리 아픈 우리아이, 소아편두통 - 소아청소년과 변정혜

[주의! 이 질병]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고 하다가 금방 멀쩡해지면 피병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인에 비해 짧은 지속시간을 갖는 소아편두통일 수 있다. 가볍게 생각하고 방치했다가는 만성 두통으로 악화될 수도 있다.

▲ 소아편두통 의심 증상 체크리스트

- 두통과 함께 구역질과 구토 증상이 있다.
-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캄캄한 곳에 누워 있다.
- 머리가 아픈 위치를 물으면 머리 옆쪽이나 앞이마를 가리킨다.
- 평소와 달리 잘 먹지 않고 놀이에도 관심이 떨어진다.
- 걷거나 계단 오르기 등 머리가 울릴 수 있는 일을 피하려고 한다.
- 두통이 생기기 전 눈에 빛이 보인다고나 잘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한다.
- 부모나 친척 중 현재 혹은 과거에 편두통을 앓은 사람이 있다.

▲ 복통과 어지럼증 같이 호소

편두통은 보통 8~10세에 처음 나타난다. 어린이의 경우 한 번 발생하면 30분~2시간 정도 지속되다 말끔히 사라져 '피병'으로 오해를 받기도 한다. 어린이는 '배가 아프다' '어지럽다' 등의 증상을 많이 호소한다. 편두통환자의 4%는 머리가 아닌 배가 자주 아픈 '복통성 편두통'에 해당되며 두통없이 어지럼증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병원의 여러 과를 전전하는 경우가 많다.

▲ 가볍게 생각하고 방치하면 만성두통으로 이어져

소아편두통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통증에 과민해지고, 한달에 15일 이상 3개월간 두통이 지속되는 '만성 편두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 해야 한다. 편두통 때문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면 스트레스가 더욱 심해지고, 일상생활과 학교생활에도 지장을 주는 일이 잦아지면서 사회적응력과 학습의욕이 떨어진다.

소아청소년과 변정혜 교수는 "병원에서는 자세한 검사를 통해 편두통을 유발하는 원인을 파악하며 필요시에는 뇌영상 촬영검사(MRI), 안과검사 등을 실시한다"며 "증상의 정도에 따라 진통제(부루펜, 타이레놀 등)또는 트립탄 제제, 칼슘통로 차단제 등으로 치료한다. 이를 통해 편두통의 정도와 횟수가 60~70%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 생활습관 교정을 통한 예방과 치료

변교수는 "소아편두통은 무엇보다도 자극을 주는 원인을 피하는 생활 습관 개선이 중요하다"며 "심리적 스트레스, 수면, 식습관 등이 모두 두통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면 아이에게만 일찍 자라고 하고 어른은 늦게까지 TV를 보는 것처럼 가족의 잘못된 습관이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가족 구성원 모두의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하다.



소화기내과 진윤태 교수, 하버드대 MRCT 임상시험관리위원회 위원 선임



소화기내과 진윤태 교수가 하버드대 MRCT 임상시험관리위원회(Harvard DSMB:Data Safety Monitoring Board) 위원으로 선임됐다.

진윤태 교수는 지난 10월 1~2일 양일간 대구 인터볼고 호텔에서 개최된 '2013 글로벌 국제 임상연구 회의

(Global Clinical Research SUMMIT 2013)' 에서 이 같이 선임되었으며, 특히, 하버드 MRCT 센터가 국외에서 임명하는 하버드 임상시험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이번 회의에서 선임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진윤태 교수는 향후 국내외에서 다국적 임상시험 monitor에 관한 교육 및 글로벌 임상시험 자료 검토 및 평가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2013 글로벌 국제 임상연구 회의' 는 국내 최초로 글로벌 임상연구를 주도하는 하버드 대학 글로벌 임상시험센터(MRCT:Multi-regional clinical trials)와 IRB 전문기관인 WIRB(Western Institutional Review Board), 보건복지부 및 식약처 등이 공동 주관하여 개최한 것으로, 국제 동향 임상연구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이슈, 전략, 추진 방향 등을 국제적인 관점에서 논의하고 정보교류를 갖고자 개최된 것이다.

병동-원무 한마음 한뜻으로, 환자중심병원



원무팀이 병동 전체에 특별한 선물을 전달했다. 환자의 편리한 입원을 위해 함께 노력 중인 26개 병동 교직원들을 위해 속초 특산물 만석 닭강정 70여박스를 선물하며, 유대관계 강화 및 사기증진에 적극 나선 것이다.

원무팀과 병동은 지난 6월 이후 입원 코디네이터 2명을 배치하고 '입원활성화 방안' 추진을 통해 신속하고 편리한 입원 프로세스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날 병동에 전해진 원무팀의 특별한 선물 역시 한마음 한뜻으로 환자를 위한 입원 프로세스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병동 간호부에 고마운 마음을 전달한 것이었다.

이날 닭강정을 선물받은 병동 간호사는 "뜻밖의 선물이 매우 기쁘다"며 "어렵고 힘들지만 환자의 편의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천사의 날(10월 4일), 우리병원에 간호천사가 떴다!



간호부는 10월 4일(금) 로비에서 '1004day 건강캠페인 및 환우 사생대회' 를 개최했다. 간호부는 매년 10월 4일 '천사데이' 를 기념해 내원객을 위한 건강캠페인을 실시해왔다. 특히, 올해는 건강 캠페인과 함께 입원환자를 위한 손마사지와 환우 사생대회를 개최하였고, 사생대회에서 선정된 우수작들에 대한 포상과 작품 전시회가 함께 개최되기도 했다.

이번 행사는 우리병원을 사랑하고 이용해 주시는 내원객에 대한 고마움과 입원환자를 위한 사랑의 손마사지를 통해 환자를 향한 간호사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환우 사생대회 개최를 통해 환자와 함께하는 병원 및 의료진에 대해 알리고 함께 그 마음을 공유하는 취지에서 진행하였다.

간호부는 앞으로 매년 1004 DAY에 맞추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환자 및 보호자와 함께하는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사회복지의날 기념 사회복지분야 유공자 표창 수상



고대병원은 10월 18일(금) 성북구청에서 제14회 사회복지의날 기념 '사회복지분야 유공자 표창' 을 수상했다.

성북구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힘쓰고 특히 저소득 소외계층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여한 공로로 수여자로 선정되었으며, 이 날 기념식에는 권병창 경영관리실장이 참석해 표

창을 수상했다.

지난 2010년 11월 성북구와 MOU 협약 체결 후 성북장애인복지관 무료진료 실시를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의료봉사활동을 추진하여 왔다.

여자간호사, 야구 그라운드에서 서다 - 53병동 김태리 간호사

[원내기자 칼럼]



새 직장에 익숙해 지는 동안 시간은 총알처럼 빠르게 흘러갔고, 어느새 가을도 중반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우연히도 준 플레이오프 다음날은 <제 1회 고려대학교 의료원 한마음 체육대회>였기 때문에 나의 야구인생에 사회인 야구가 포함되지 않았나 싶다.

오전 행사에 안암, 구로, 안산 세 병원의 야구 동호회 선생님들 중에서 스물네 명의 올스타를 뽑아 청백전 형식으로 구성된 야구 시범 경기가 예정되어 있었고, 여기에 롯데 자이언츠 팬이신 안산병원 모 선생님의 해설

까지 곁들이니, 용기를 내 가입 게시판에 신청글을 남기며 진짜 야구(?)를 시작 하게 된다.

정식 가입 후 처음 참가한 훈련은 영원히 못 잊을 것이다. 심지어 입사하고서 한 번도 운 적이 없는데, 황금 같은 일요일 오프에 야구공 맞고(그것도 우리 팀 좌완 선발이 던진 것) 초면

에 눈물을 보이는, 총체적 난국의 하루였다.

첫 훈련에서 정신적 충격이 커서, 그만 두어야 하나 싶었는데, 막상 한다고 했는데 한 번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기는 싫었고, 또 야구를 배울 기회가 없을 것 같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기로 하였다. 다행히 날씨가 풀리니 도망 나갔던 정신과 운동신경이 돌아왔는지, 첫 훈련 날처럼 엉망진창으로 훈련 내용을 못 따라간 날은 없었고, 아직 갈 길은 멀지만 4구, 주루사라는 성적으로 첫 출장도 무난하게(?) 마쳤다.

아직 연습도 많이 부족하고 배워야 할 것이 많지만, 여러가지로 배려해 주고 챙겨주시는 팀원 선생님들 덕분에 지금까지(첫 훈련을 빼면) 별 탈 없이 야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이 자리를 빌어 팀의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 앞으로 남은 시즌 부상 없이 좋은 경기 할 수 있기를! Wide tigers 파이팅!!

현재 안암병원 Wide tigers야구단은 전년도에 이어 2013년 제 4회 의무부총장배에서 우승을 하는 등 각종 리그에서 좋은 성적으로 사회인 야구에 입지를 높이고 있다.

글·사진 | 김태리 간호사

64병동의 날개 없는 천사들

[칭찬합니다]



나는 안암 64병동에서 날개 없는 천사들을 보았다. 나의 피 주머니를 비워주고 소변 통을 비워주는 간호사의 손길은 하나도 거리낌이 없었다. 타인의 오물을 만진다는 거, 그 촉감은 말할 수 없이 이상하며 누구나 거부감을 많이 가질 것인데 내가

거북하지 않고 미안하게 하지도 않도록 자연스럽게 처리해 준다.

어제 장루주머니가스를 간호사가 제거했다. 아무 스스럼없이 정말 감사하고 고맙웠다.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서 오물이 고였는데 비워주겠노라 했다. 양이 많지 않으니 좀 더

지나서 내가 하겠노라 하고 시간이 흐른 후 화장실에 가서 장루주머니를 비우고 씻었다. 냄새는 상상을 초월하게 지독했으며 장루주머니를 씻는 게 비참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런 구차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것들에 100%공감을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그렇게 혐오스럽게 취급할 수 있는 일들을 선뜻해주겠노라는 한주이 간호사나 김리라 간호사는 분명 날개 없는 천사다.

모두가 잠들어 깨어나기 전 새벽 다섯 시엔 어김없이 찾아와 혈압과 체온을 체크하며 밝은 목소리로 "몸무게 확인해 주세요." 하면서 새벽을 깨워주는 간호사님들과 김선태 교수의 안암 64병동은 모두가 인간을 진정 사랑하고 의술을 전하는 분들이라 의심하지 않는다. 몇몇 무표정한 의사선생님도 있지만 청소하는 할머니까지 밝고 쾌활하게 사랑을 실천하는 분들 올 가을에는 어느 해보다 더 알차고 이루고자 하는 꿈들을 꼭 이룰 수 있기를 기원한다.

2013년 9월 허OO 드림
글·사진 | 김태리 간호사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척하지 않은 10년차' - 핵의학과 백재훈 주임방사선사 [집중! 이사람]



▲킴킴한 사무실의 불을 제일먼저 밝히는 사람...

뭔지 차분하면서도 바쁜 일과를 보내는 사람..

오늘도 그는 조용하면서도 뭔가를 쉬지 않고 조용히 하루를 시작한다.

병원의 내 외부 주위 환경이 변했지만 그중 변화되지 않은 과가 있다. 그냥 스쳐 지나 관심을 두지 않으면 그냥 스쳐 지나갈듯하지만 묵은지의 감출 맛 나듯 감춰진 철제 방화문안에 각자의 맡은 업무 속에 하루도 분주히 일을 하는 많은 직원들 사이에 있는 듯 없는 듯 묵묵히 외부 모습처럼 변하지 않고 조용히 일을 처리하는 직원이 있다.

나서지도 않고 '척'도 하지 않으면서 누구보다 성실

하고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

'척'하지도 않으면서 맡은 바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핵의학과 백재훈 선생님을 소개한다.

▲ 올해로 10년차, 진정한 숨은 일꾼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했다. 그는 올해가 10년차다.

변할 때도 됐지만 변하지 않는 그를 만나 자연스럽게 일문일답식의 질문을 던졌다.

몇 년도 입사하였나요? 그전 어디에 근무했나요?

핵의학과에서 주로 하는 일은 무엇인가? 바람이 있다면?

그는 2004년 입사하였고 그전 서울대학병원을 거쳐 한일 원자력병원에서 PET를 담당하여 일하던 중 고대안암병원의 PET 도입과 더불어 이를 운영하기 위해 스카우트 된 인재이다. 지금은 근무 형태의 변경으로 순환근무를 하지만 PET운영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요즘 말하는 PET의 달인에 가깝다. 과거의 PET, 요즘은 PET/CT라 하지만 운영의 근간은 동일하다. 그의 하루는 아주 평온한 듯 하지만 핵의학과 숨은 해결사이다.

그는 알아주기 위해서보다 '나로 부터의 시작' 을 강조했다. 또한 사회적분위기를 떠나 대부분 사람들은 마땅히 처리해야 할 부분을 너무 과장되게 보여주기 위한 자기 홍보를 일삼는 경향이 있다. 좀 더 자신을 낮추며 맡은 바 업무 수행했으면 했다.

자기개발 뿐만 아니라 성실한 업무수행으로 누가 알아주기보다 알아서 해결하기를 자청하는 그와 같은 직원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각되어야 할 것이며 칭찬받아 마땅할 인물임에 틀림없다.

진정 숨은 일꾼은 이런 사람이 아닐까? 글·사진 | 원대기자 강용길 koreatzp@korea.ac.kr

전철로 떠나는 낭만 여행 _ 아! 춘천, 그리고 김유정역 레일 바이크

[여행정보]



수도권 전철 강춘역과 남춘천역 사이에 있는 김유정역은 처음으로 역이름을 사람 이름으로 사용한 역으로 역사 또한 고풍스러운 한옥으로 지어져 첫발을 내딛는 이들에게 여행의 기대감을 충족시키는데 더할 나위 없이 좋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경춘선 폐철로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레일 바이크다. 레일바이크는 강춘역과 이어져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2시간 단위로 운영하는데 인터넷 예약은 필수가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로 부터 사랑 받고 있다. 거인국의 도서관에 와 있는 듯 착각에 빠져들게 하는 독특한 책꽂이 조형물은 찾는 이들로 하여금 멋진

배경 사진을 제공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한 손에 에세이 한권 올려 놓고 사색에 빠지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레일바이크는 강춘역까지 1시간30분정도 소요되며 출발지로는 무료순환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파사로운 가을 햇살을 머금고 낭만의 경춘선 철마가 지난 자리를 되새기며 과거로의 여행을 떠나 보자.

김유정역 앞에 펼쳐지는 풍경은 어느 시골 마을처럼 소박하지만 사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숨어 있는 실례 마을과 시공을 나누고 있는 김유정 문학촌이다. 여기서 [실례]는 마을이 금병산에 둘러싸인 모습이 마치 움푹 들어간 떡시루 같다고 하여 지어진 것이다. 작가 김유정의 고향인 이 마을자체가 그의 여러 작품속 무대였으며 점순이등 소설속 등장인물들이 실존했다는 이야기도 전해 지고 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금병산 자락에 만들어진 [점순이]가 나를 꼬시던 동백숲길등 열여섯 마당의 실례이야기길은 1시간에서 1시간반 정도의 코스를 선택하여 김유정의 소설속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문학기행을 오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 또한, 김유정의 생가를 복원하여 만든 김유정 문학촌은 김유정의 짧은 생애를 안타까워하며 그의 대표작 [봄 봄], [동백꽃]의 아련한 이야기를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어서 좋다.

이 가을 김유정역으로 발걸음을 옮겨 보자.

김유정 문학촌 <http://www.kimyoujeong.org/>, 레일 바이크 <http://www.railpark.co.kr>

글·사진 | 원대기자 류한성

